

마산시 지부

앞서가는 행정력... 지부발전 꾀한다



김 병 일 지부장

두칸짜리 대구·마산간 전동열차가 마산역에 도착한 시간은 하오 3시 40분. 그리 혼하다 할 수 없는 서울발 마산행 직행열차에 시간을 맞추지 못해 대구에서 기차를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했으나 낮은 산들이 겹을 이루고 사이사이로 골을 낸 전답들이 물러 설 때 마다 목적지 마산시가 가깝게 다가오고 있었다.

인구 40만 가량의 유서 깊은 도시, 마산시는 최근 공업도시로 부상한 창원시를 곁에 두고 진해, 거제, 통무 등 인근 중소도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창원이 산업화에 의해 급속히 성장했다고는 하나 오랫동안 경남의 역사 한켠을 지켜온 뿌리가 어디 만만한 것이든가.

마산역은 의외로 한가하다. 여타도시의 역전에서 부딪히는 번잡함과 요란함이 없다. 늦봄

마산은 공연한 번잡함과 요란함이 없는, 그러나 그 차분함 가운데 삶의 활기가 충만한 도시다. 지역 특성을 살린 제품 개발, 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회원들의 결집을 다지는 마산지부의 내일은 가능성으로 가득차있다.

을 마감하고 여름으로 접어드는 싱그러운 햇볕, 그리고 남해의 상큼한 바람이 타지에서 넘어온 낮선 이의 가벼운 흥분을 가라앉힌다.

그 차분함과 싱그러움은 마산시지부 사무실이 자리한 창동 변화가에도 마찬가지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일까. 도시 전체가 소리없이 움직인다.

'건국 이래 민주화의 맹아가 된 곳, 수출입국의 기반이 되어 한국 경제의 터전을 일군 곳, 그리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전통의 도시'. 마산의 자량이 무엇이나는 첫 질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쏟아져 나온 간결한 대답을 들으며 김병일지부장 그리고 유해운부지부장을 포함한 이 사진과 담화를 나누는 시간에도 앞서의 차분함이 되살아난다. 다만 이제는 그 차분함 속에



유 해 운 부지부장

임 체 백 감사

차 영 술 이사

정 창 국 이사

유 영 화 이사

감추어진 마산지부의 활력이 실체가 되어 등장하여 마산시지부의 진면모가 되고 있다.

마산시지부는 올해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게 되었으므로 이제 창립 19년째를 맞는다. 현재 회원수 1백30 남짓, 회원구, 합포구 양구에서 각각 10명씩 선임된 20명의 이사진이 지부의 살림을 꾸려 나간다. 회장단이 구성되고 구·동별로 이사진을 따로 두고 있는 여타의 지회·지부와는 달리 양구의 선임이사 가운데서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선출하게 한 것은 마산시의 행정구가 두개 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좁다면 좁은 테두리 안에서 더욱 치밀한 조직 운영을 기대하기 위해서 최대한 폭 넓은 이사진을 확보한다는 나름의 정책이다.

‘조직의 발전은 사람과 사람의 유대관계에서 비롯된다. 잦은 만남과 인간적 교류를 계기로 각 회원의 소속감과 지부전체의 단합된 힘이 결집된다.’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준엄한 명제를 마산시지부 이사진은 직접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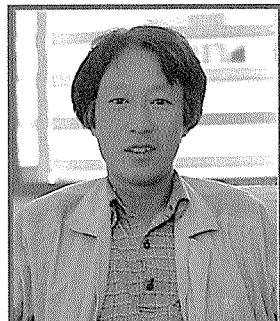
지부의 이사들은 매월 1회 정기 이사회를 가진다.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지부의 대소사와 협회의 당면문제 또 업계의 발전 방향을 논하

기 위해서는 월 1회라는 한정된 시간은 다소 모자라는 감이 있다. 따라서 자연히 이사들의 지부 사무실 출입은 잦은 편이다. 또 당번을 정해 1인 이상의 이사가 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요하는 사안들을 순발력있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길흉사 또한 신속하게 지부 전체 회원에게 전파되어 지부 화합에 힘이 된다.

마산시지부는 연 1회 실시하는 지부단합 행사, 가족 동반 야유회에 거의 대부분의 회원이 참석할 정도로 좋은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

2년여전 마산시지부는 현재의 사무실을 회원들의 출자를 통해 마련하였다. 회의실을 겸한 이 사무실에는 기술세미나를 열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하여 수시로 기술력 향상을 위한 모임이 열리고 있다. 기술분과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해운부지부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제품개발에 비중을 두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마산시지부는 앞으로 공동구매 사업을 강화하여 원가절감, 제품력 향상에 전력을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일은 공동구매분과위원장을 맡은 윤이부부지부장의 책임아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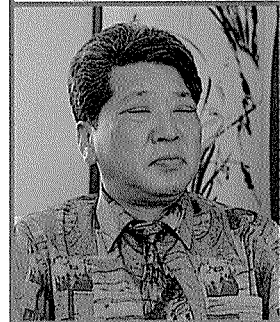
마산시지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끄는 원



김 중 훈 이사



이 기 수 이사



조 용 태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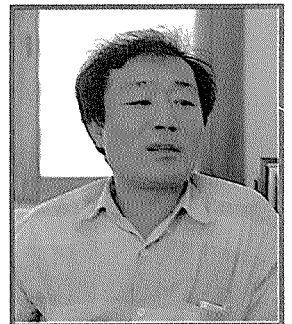


동력은 무엇일까? 외지사람이 거의 없는 마산시. 게다가 지부회원의 80% 이상이 기술인 출신이다. 이것이 회원간의 신의와 기술향상의 쉽 없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술인들은 연령별 혹은 소지역별로 모임을 열어 여론을 만들고 또 수렴, 마침내는 지부회의시 반영되도록 하여 발전의 계기를 이룬다고 한다.

인근 시지부의 망형 노릇을 기꺼이 하고 있는 마산시지부는 사실상 이들 지부들을 탄생시킨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때 이들 지부는 모두 마산시지부의 한 식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산시지부의 경륜은 마산시지부가 일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김병일지부장은 이러한 부분에서 남다른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김지부장은 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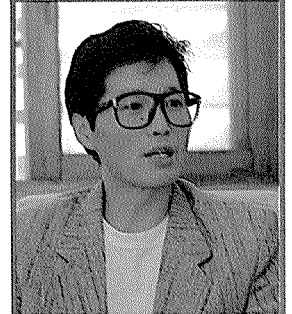
손 영 주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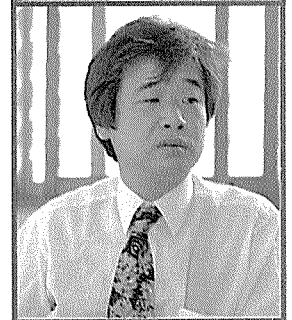
박 원 조 이사



박 경 종 이사



이 순 기 이사



징수에 지로용지를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을 실행시켜 업무 효율화를 이루었다. 경비를 절감하고 수금률을 극대화하는 한편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자랑이다. 또 앞으로 마산시지부는 ‘월간 베이커리’의 보급에도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 전 회원이 가장 신속하게 책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 한다.

이밖에 허가증을 허가관청의 협조하에 지부에서 직접 전달하며 회원증을 함께 교부하여 회원 결집을 유도하고 위생점검도 지부 자체 역할을 강화, 보다 진보적인 채과업계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의 모범지부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지회·지부의 거울이 되겠다는 자신감이 마산시지부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글 김희득)